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국내학회지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Experience - Focusing on Domestic Journals -

김 수 정¹⁾
Soo Jung Kim

1. 서론

교실에서 교사가 경험하는 정서는 교실 내의 교수-학습과 관련된 환경을 구성하는 매우 주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교사가 경험하는 정서는 우선 교사의 삶의 질과 심리적 건강(Chang, 2009; Keller, Chang, Becker, Goetz, & Frenzel, 2014), 교실의 운영(Sutton, 2005), 그리고 학습자의 정서 및 학습동기(Bakker, 2005; Radel, Sarrazin, Legrain, & Wild, 2010), 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학습 및 이들의 성적(Beilock, Gunderson, Ramirez, & Levine, 2010; Pekrun, Goetz, Titz, & Perry, 2002)에 까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소로 작용함을 선행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Sutton & Wheatley, 2003; 이춘복, 2016). 특히, Sutton과 Wheatley(2003)는 교사의 정서경험이 교사의 인지과정, 예를 들어, 주의, 기억, 그리고 교수 상황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교사의 교수행동, 나아가 학습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설명한 바 있다(Sutton & Wheatley, 2003). 이러한 제안에 근거하여 Frenzel, Goetz, Lüdtke, Pekrun, 그리고 Sutton(2009)은 교사의 즐거움과 학생의 즐거움 및 학습에의 동기의 정도가 긍정적으로 상관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고, 이러한 관계가 교사의 열정(enthusiasm)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통해 매개됨을 밝힘으로써, 교실에서의 교사의 정서, 특히 긍정적인 정서가 학습자에게 전이(transmission) 됨을 이론화하였다(Frenzel et al., 2009).

특히, 보육교실은 상위 학급 교실에 비하여 교사의 정서적 측면이 교실의 교육 및 양육 환경 맥락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더욱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왔다(안혜준, 2010; 오정민, 신나리, 2017; 이진화, 박은혜, 2008; 이춘복, 2016; Hargreaves, 1998).

본 연구는 최근 수행되어진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정서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추후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영유아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경험과 관련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87편의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영유아교사의 정서 관련 논문은 2012년도 이전과 비교하여, 2013년도 이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연구유형의 경향은 검사 및 척도를 적용한 설문 조사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이루어진 연구주제로서, 부정적인 정서경험에 관하여서는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소인이었으며, 긍정적인 정서경험에 관하여 가장 많이 연구되어진 주제는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행복이었고,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행복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정서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 및 건강한 정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었다.

■ 주제어: 영유아교사
(Early Childhood Teachers)
정서경험
(Emotional Experience)
연구동향
(Research Trends)

* 이 논문은 2017학년도 평택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평택대학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조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
(ksj@ptu.ac.kr)

우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은 교사와 영유아 간의 빈번한 정서적인 교류를 전제로 한다(이승민, 이승연, 2009; Edwards & Raikes, 2002; Honig, 2002). 발달 특성 상, 영유아 시기는 자신을 양육하는 성인과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 발달과업을 갖고 있으며, 안정적이고 신뢰롭게 형성된 애착관계를 바탕으로, 영유아는 주변 환경을 탐색해 나가며,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 및 성장을 이루어 간다(신애선, 2017; Edwards & Raikes, 2002). Sutton과 Wheatley (2003)의 논문에 따르면, 교사의 정서는 교사의 교수활동에의 동기(예. 자기결정성동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동기에 근거한 적극적인 교수활동을 통한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 및 보육과정 수행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김은주, 이기중, 2014), 교사의 정서는 영유아교사의 효과적이고 질 높은 교육활동 수행에 있어 매우 주요한 변인이 됨을 예측할 수 있겠다(임영미, 정희정, 2016; 김기철, 신애선, 2016). 따라서 영유아 보육기관에서의 교사는 자신이 담당하는 영유아와의 신뢰롭고 안정적인 정서 교류를 통하여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을 수행해 나가게 된다. 즉, 영유아교사는 보육과정의 운영과정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영유아와 지속적인 정서적인 교류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 영유아에게 신뢰감을 토대로 한 정서적 애착을 제공하는 영유아교사들도 영유아와의 이러한 관계를 통해 교사로서의 보람 및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보육활동 수행의 심리정서적인 자원으로서 기능하게 됨을 선행연구들은 밝히고 있다(Lee, 2006).

한편, 보육과정을 수행해 나가며 영유아교사들은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경험 외에도, 필연적으로 불유쾌한 정서 혹은 심리적 압박을 경험하게 된다(이승미, 이승연, 2009). Goldstein과 Lake(2000)는 예비 영유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통하여 발달적으로 미성숙한 영유아를 지속적으로 돌보는 일이 정서적인 긴장, 분노, 정서적인 소외 및 무력감을 유발시킬 수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 특히, 2013년 무상보육 도입 이후, 영유아들이 보육시설에 진입하는 평균 연령이 점차 앞당겨지고 있으며, 오랜 시간 영유아가 보육교실 내에 머무르는 보육환경의 특성상, 영유아교사의 정서적인 노동의 강도는 높고, 또 길어지게 된다(강현미, 2015; 서미정, 이경남, 2017; 신희정, 문혁준, 2013; 오봉희,

송주희, 박수경, 2017; 이선미, 이승미, 2013; 이승미, 이승연, 2009; 조미숙, 전홍주, 2016; 조혜진, 김수연, 2012).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경험의 축적으로 영유아교사는 정서적 고갈 내지 소진을 경험하게 하며(김경희, 송진영, 박용순, 2017; 박선미, 2013; 박영신, 2017; 오봉희 외, 2017; 이유경, 이선미, 2016; 정덕희, 2015), 이는 영유아교사로서의 직업을 그만하기로 결심하게 되는 이직 혹은 전직의사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음을 최근의 연구들은 밝히고 있다(김건옥, 2016; 김화선, 조홍자, 2017; 김화순, 문혁준, 2016; 양연숙, 2011; 정지연, 박영희, 2015; 최진영, 김영희, 김대광, 2015).

선행 연구들은 교사의 정서가 교육활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하루 중 긴 시간을 부모를 대신하여 보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심리적 안녕감과 정서 상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신희정, 문혁준, 2013; 이나영, 국지윤, 김영옥, 2014; 이선미, 이승미, 2013; 정다우리, 2013; 조혜진, 김수연, 2012; Skinner & Belmont, 1993; Sutton & Wheatley, 2003; Wentzel, 1996). 또한, 열악한 보육 시스템 속에서 보육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영유아교사들이 매일의 보육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에 대한 이해가 절실한 상황임에 대하여 많은 연구자들 또한 공감하며(김경희, 송진영, 박용순, 2017; 방해순, 조옥선, 2017), 최근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영유아교사가 보육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들 중, 특정한 정서경험변인(예. 행복, 소진, 정서노동, 우울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되는 경우가 많아, 영유아교사들이 하루 일과를 통해 보육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차원의 정서경험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교사들이 경험하는 정서경험이 교실 내의 영유아에게 전이됨에 따라(Frenzel et al., 2009) 영유아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을 고려할 때, 축적된 특정 정서 경험과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과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결과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은 영유아교사들의 건강한 정서경험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매우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되어진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정서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들을 보다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추후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최근 한국에서의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 관련 연구의 연구시기별 동향은 어떠한가?
- 2) 최근 한국에서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 관련 연구의 자료수집 동향은 어떠한가?
- 3) 최근 한국에서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 관련 연구의 연구유형 동향은 어떠한가?
- 4) 최근 한국에서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 동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 관련 연구 동향과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국내에서 이루어진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경험과 관련되어 학술지에 게재된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국회도서관 학술검색 지원서비스, 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는 학술검색 지원서비스(KISS), 그리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학술검색 지원서비스(KERIS)를 통해 ‘유아교사 정서,’ ‘보육교사 정서,’ ‘보육교사 정서경험’을 키워드로 2008년부터 2018년 3월까지의 국내 영유아 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을 검색하였다.

제안된 검색어를 통해 수집된 영유아교사 및 영유아교사의 정서 관련 국내의 연구 논문들(총 347편)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논문제목, 목차, 초록, 본문 등을 검토하여 연구대상 및 주요 연구 변인을 확인한 후, 유치원 및 보육교사의 정서경험을 살펴보는 것에 주요한 연구 목적을 가지고 있는 총 103편의 학술지 논문이 분석을

위해 수집되었다. 이 중, 다문화 교육 관련 정서경험연구(9편)는 영유아교사의 일반적인 정서 경험 중, 다문화 교육에서 주로 특정하게 다루는 정서적인 경험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그리고 예비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에 관련된 논문 및 현직 유치원 교사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7편)을 제외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총 87편의 학술지 논문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되었다.

2. 분석기준

1) 연구연도별 분석기준

본 논문은 보육환경이 지난 10년간 많은 변화를 이루어왔음을 고려하여(조복희, 강희경, 김양은, 한유미, 2013),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에 관한 최근 발간된 논문편수의 증가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2008년부터 2018년 3월까지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여 1년 단위로 분석하였다.

2) 연구대상별 분석기준

연구대상의 유형은 유아교사, 어린이집 교사, 영아반 교사, 초임영유아교사로 구분하였는데, 연구대상이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모두에 해당할 때, 유아교사로 분류하였다. 한편, 연구대상이 영아반 교사에게 한정된 경우, 그리고 초임 영유아교사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경우, 각각 “영아반 담당 교사로 한정,” “초임 영유아교사로 한정”의 범주로 분류하였다.

3) 연구유형별 분석기준

연구유형은 정희정과 김정희(2016), 송미선(2014), 그리고 노희연(2007)의 연구 등을 근거로 본 연구의 성격에 맞추어 양적연구, 질적연구, 문헌분석으로 분류하였으며,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측정하는 독특한 연구 방법으로 긍정심리학 분야에서 제안되어 온 Seligman(2006)의 사건-연계 기록법은 양적연구의 하위 유형으로서 포함하였다(남기원, 이은형, 2015; Muehlenkamp, Engel, Wadson, Crosby, Wonderlich, Simonich, & Mitchell, 2009).

4) 연구주제별 분석기준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연구자는 정서 관련 선행연구(서정아, 2010; Hagenauer, Hascher, & Volet, 2015; Sutton & Wheatley, 2003)와 연구동향분석 관련 선행연구(송미선, 2014; 이해진, 정대련, 2017; Hall-Kenyon, Bullough, MacKay, & Marshall, 2014)들을 참조하여 분석대상 논문들을 정독하는 과정을 통해 영유아교사의 정서 경험과 관련한 연구주제를 크게 유목화 하였다. 우선, 긍정적인 정서경험과 부정적인 정서경험으로 분류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정서를 크게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로 유목화 하여 정서를 이해하고자 한 선행연구의 제안을 토대로 하였다(Rosemary & Karl, 2003; Zembylas, 2007). 부정적인 정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거나, 하위차원으로 부정적인 정서 측면을 포함하고 있는 소진, 우울감 등을 주요 연구주제로 삼고 있는 연구들 또한 부정적인 정서경험과 관련된 연구의 부류로 포함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긍정적인 정서와 밀접하게 관련, 혹은 하위차원으로 긍정적인 정서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행복감과 같은 정서경험을 살펴본 논문은 영유아교사의 긍정적인 정서경험과 관련된 연구의 부류로 포함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의 긍정 혹은 부정적인 정서경험이 아닌,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 자체를 연구 주제로 삼은 경우는 따로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분석한 연구들은 부정적인 정서 및 부정적인 보육활동과 관련 있는 내적 특성으로 연구주제를 도출하였으며,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살펴본 연구들은 긍정적인 정서; 긍정적인 정서를 통한 보육활동; 그리고 긍정적인 보육활동과 관련 있는 내적 특성으로 연구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 주제별로 분류된 각각의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들을 기준으로 유목화하여 분석기준을 마련하였다.

표 1. 연도별 분석대상 논문 분포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3월)	소계
1 (1.1)	3 (3.4)	3 (3.4)	3 (3.4)	2 (2.3)	13 (14.9)	8 (9.2)	17 (19.5)	19 (21.8)	16 (18.4)	2 (2.3)	87 (100.0)

3. 자료분석

연구자와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인 연구보조자 1인이 각각 87편의 논문을 분석하여 비교해 본 결과, 분석기준에 따른 분석자간의 일치도는 4가지의 분석기준 모두 95%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 관련 연구 동향의 분석을 위해 최종 선정된 학술지 논문을 연구자는 도출된 분석기준에 따라 연구연도별, 방법별, 주제별로 코딩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SPSS WIN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영유아교사의 정서 관련 연구의 연구연도별 동향

최근 학술지논문에 게재된 영유아교사의 정서 관련 연구의 연도별 전체적인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표 1에 의하면 영유아교사의 정서 관련 논문은 2012년도 이전과 비교하여, 2013년도 이후부터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분석하기 위해 선정한 총 87편의 국내 학술지 게재 연구 중, 2014년과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감소 추세를 살펴볼 수 있었으나, 2015년도 이후, 3년간(2015, 2016, 2017년도)의 연구가 총 52편에 달해, 전체 분석 대상 논문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영유아교사의 정서 관련 연구의 연구대상 동향

영유아교사의 정서 관련 논문의 연구방법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대상, 자료수집 방법을 살펴보았다. 먼저 연구대상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연구대상의 경향

연구대상	빈도(%)
영유아교사 (어린이집 교사 & 유치원 교사)	23(26.4)
어린이집 교사	54(62.1)
영아반 담당 교사로 한정	9(10.3)
초임 영유아교사로 한정	1(1.2)
합계	87(100.0)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영유아교사의 정서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은 어린이집 교사인 경우가 54편(62.1%)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영유아교사(유치원 교사 + 어린이집 교사)가 23편(26.4%)이었다. 또한,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이들이 독특하게 경험하게 되는 정서경험에 관하여 살펴본 연구가 9편(10.3%)이었다. 또한, 남기원과 이은형(2015)의 연구는 1년차 초임 영유아교사 60명을 대상으로 하여, 초임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정서경험을 살펴본 바 있다.

3. 영유아교사의 정서 관련 연구의 연구유형 동향

연구유형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유형의 경향은 검사 및 척도를 적용한 양적연구가 79편(90.80%)이었으며, 특히,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한 논문이 78편(89.66%)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한편, 양적연구 유형 중, 흥미로운 연구유형으로서, 남기원과 이은형(2015)은 초임영유아교사의 행복감 특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한 초임영유아교사들이 특정한 만남을 통하거나, 혹은 특정한 경험을 하는 과정에서 행복감을 느꼈을 때, 경험 직후 자기 보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인 사건-연계 기록법(event-contingent recording)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사용하는 다른 양적 연구방법과 비교하여, 개인의 변화무쌍한 정서를 기억에 의존하지 않고 연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 인간의 정서연구에 효과적인 연구방법인 것으로 선행연구를 통해 소개된 사건-연계 기록법을 양적 연구방법과 분리하여 다른 연구유형으로 분류하였다(남기원, 이은형, 2015; Muehlenkamp, et al., 2009; Seligman, 2006).

다음으로는 총 7편(8.05%)의 연구가 질적연구를 통

하여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정덕희(2015)는 유아교사의 소진에 관하여, 조미숙과 전홍주(2016)는 만 1세 영아반 교사의 정서적 노동에 관하여, 고재욱(2012)은 유아교사의 감정노동 해소에 관하여 심층면담을 통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유아교사의 부정적인 정서감정에 관한 3편의 연구 외에, 이승미와 이승연(2009)은 심층면담을 통하여 만 2세 영아반 교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관계 안에서 경험하는 정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바 있다. 그 외 포커스 그룹인터뷰 혹은 자기보고식 저널 등의 질적인 자료 분석 방법 등을 활용하여 영유아교사의 정서 경험과 관련된 질적인 자료를 수집한 연구들이 각각 두 편, 한 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3.
연구유형의 경향

연구유형	N(%)
양적연구	79(90.80)
• 설문지 (개방형 설문지 포함)	78(89.66)
• 사건-연계기록법	1(1.15)
질적연구	7(8.05)
• 면담	4(4.60)
• 면담, 토의자료, 저널쓰기, 자기변화보고서	2(2.30)
• 포커스그룹인터뷰	1(1.15)
문헌분석	1(1.15)
합계	87(100.0)

4. 영유아교사의 정서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 동향

영유아교사의 정서 관련 논문의 연구주제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변인 중,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을 주요하게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영유아교사의 정서 관련 논문에서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을 분석해 본 결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87편의 학술지 게재 논문의 주제는 크게 영유아교사의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총 47편)와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설명하는 연구(총 39편)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

승미와 이승연(2009)의 연구에서는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정서 전체를 살펴보는 것을 주제로 연구되었다.

표 4.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 분석을 통해 분석한 연구주제의 동향

연구주제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과 관련하여 해당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인	N(%)	
영유아교사의 부정적인 정서경험	소진	19 ^a (21.84)	
	부정적인 정서	정서노동	7(8.05)
		교사의 우울	1(1.15)
	부정적인 보육활동과 관련 있는 내적 특성	이직(전직)의도	7(8.05)
	직무스트레스	5(5.75)	
영유아교사의 긍정적인 정서경험	긍정적인 정서	행복	14 ^b (16.09)
		삶의 질	1(1.15)
		조직몰입(헌신)	4(4.60)
		보육헌신	2(2.30)
	긍정적인 정서를 통한 보육활동	상호작용	5(5.75)
		역할수행	2(2.30)
		교수몰입	2(2.30)
		애착실행모델	1(1.15)
		유아교사관계	1(1.15)
		직무만족	7(8.05)
긍정적인 보육활동과 관련 있는 내적 특성(자원)		보육효능감	1(1.15)
		정서몰입	1(1.15)
		전문성인식	1(1.15)
		행복플로리시(역량)	2(2.30)
		정서적 역량	2(2.30)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 전체		임파워먼트	1(1.15)
	정서경험	1(1.15)	
합계		87(100.0)	

a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로서의 소진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 연구가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음.

b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로서의 행복을 측정하는 척도 개발 연구가 본 연구 분석에 포함되었음.

표 4에 의하면,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과 관련하여 연구들에 포함된 주요 변인으로서, 부정적인 정서경험에 관하여서는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소진($n=1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영유아교사의 소진은 정서노동(권혜진, 2009; 김경희 외, 2017; 김정희, 최미경, 2013; 오봉희 외, 2017; 이나영, 국지윤, 김영옥, 2014; 이병임, 2014; 이유경, 이선미, 2016; 이영미, 민하영, 2011; 이지연, 이효림, 정정희, 2015; 황혜신, 2010), 직무스트레스(강미자, 2013; 박영신, 2017; 정지연, 박영희, 2016; 최형성, 2015)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설장 혹은 부모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박영신, 2017; 이영미, 민하영, 2011; 이유경, 이선미, 2016; 정지연, 박영희, 2016), 정서표현규범(권혜진, 2009), 자아탄력성(정지연, 박영희, 2016; 황혜신, 2010), 교사효능감(강미자, 2013; 이병임, 2014; 정순희, 최영미, 이희영, 2013) 직무만족감(강미자, 2013; 오봉희 외, 2017)은 영유아교사의 소진을 제어할 수 있는 조절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와 정서적 교류를 토대로 하는 영유아교사의 직무 특성 외에, 부모와의 교류 및 어린이집 조직 구성원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영유아교사는 자신이 경험하는 정서를 있는 그대로 표현하기 어렵고, 영유아교사로서의 사회적 규범, 혹은 조직 내의 표현규범에 맞추어 정서를 표현해야 하는 심리정서적 노동이 요구되는 현실은 영유아교사의 정서적 소진을 예측할 뿐 아니라,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경험 자체로서 연구되어 오고 있었다.

한편, 영유아교사의 긍정적인 정서경험과 관련하여 연구들에 포함된 주요 변인으로는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행복($n=14$)이었다.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행복과 관련된 변인을 탐색하는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정서표현성 및 정서지능(이은숙, 이경남, 2015; 임소연, 2017; 장희선, 2017), 교사효능감(이은숙, 이경남, 2015; 임소연, 2017; 임수진, 여은진, 이혜원, 2013), 원장의 리더십(이강훈, 황해익, 2017), 기관 내의 사회적지지(이경화, 심은주, 2013; 정순영, 김경란, 2017), 직무만족도(임수진 외, 2013), 영성(이경화, 심은주, 2013), 유머와 같은 성격강점(김미진, 황해익, 2015; 황해익, 강현미, 탁정화, 2014) 등이 영유아교사들이 보육현장에서 행복정서를 경험하는 것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유아교사가 보육현장에

서 어떤 행복정서를 경험하는지를 알아보고, 그 행복 경험의 의미를 찾아보기 위한 연구 또한 시행되었다(박병기 등, 2014). 6명의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내러티브 연구를 통해 박병기 외(2014)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 동료들과의 나눔, 학부모의 인정을 통해 경험하는 행복, 그리고 배우고 성장하며 경험하게 되는 행복은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재미를 알게 하고, 사랑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게 하였으며, 교사로서의 자신의 성장 및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음을 밝혀내었다(박병기 외, 2014).

이러한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의 경험은 조직몰입(임수진 외, 2013), 보육헌신(몰입) 및 역할수행(최혜진, 이호필, 2015), 수준 높은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수행(정다우리, 2013), 긍정적인 애착실행모델 수행(김혜순, 2015)과 같은 긍정적인 보육활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정서경험이 예측하는 긍정적인 보육활동의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영유아교사들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정서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개발 또한 이춘복(2016)의 연구와 김미진과 황해익(2015)의 연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임승렬과 김정림, 전방실(2014)은 영유아교사의 행복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김연옥, 천성문, 이정희(2012)는 유아교사의 정서적 소진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 연구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보육 환경에서 교사들이 경험하는 특정한 정서경험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하기 위한 척도 개발 연구가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최근 수행되어진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정서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추후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 관련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유아교사의 정서 관련 논문은 꾸준히 증가되어 오고 있는 추세였으며, 특히, 2013년도를 기점으로 하여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동향은 2013년 이후 실시된 무상보육을 통해 보육

서비스를 사용하는 영유아교사들의 업무는 가중되었을 뿐 아니라, 보육시설에 진입하는 영유아의 연령이 낮아지고, 학부모의 요구도 강화되어감에 따라, 영유아교사들의 업무가 가중되었음을 보고하는 선행연구들에서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이재무, 송영선, 2012).

둘째, 최근 영유아교사의 정서관련 논문의 연구대상에 관한 동향 분석 결과 특히, 영아반을 담당하고 있는 영유아교사의 정서 경험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는 영아반 교사는 동일한 보육시설 내에서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어린 연령의 영아들과 소통해야 하며, 개별적인 도움을 많이 필요로 하는 영아의 발달 특성으로 인해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다른 연령을 담당하는 유아교사들에 비하여 더 많은 영아교사들의 독특한 보육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정서경험에 더 빈번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강현미, 2015; 서미정, 이경남, 2017; 신희정, 문혁준, 2013; 오봉희 외, 2017; 이선미, 이승미, 2013; 이승미, 이승연, 2009; 조미숙, 전홍주, 2016; 조혜진, 김수연, 2012). 뿐만 아니라, 양육자와의 신뢰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영아를 담당하고 있는 영아담당교사의 정서는 이들의 건강한 발달에 있어 그 영향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영아를 담당하는 유아교사들이 보육활동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경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영아담당교사를 위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구유형의 경향을 살펴본 결과, 검사 및 척도를 적용한 양적연구유형의 논문이 대략 90%를 차지하고 있었다. 소수의 연구들이 영유아교사들과의 심층면담 및 포커스 그룹 인터뷰 혹은 자기보고식 저널 등의 질적인 자료 분석을 통하여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정서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시행된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정서와 관련된 변인에 관한 척도의 질문들에 대하여 영유아교사 자신이 자기보고식으로 평정하는 연구방법이었다. 이러한 양적인 연구방법은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다양한 정서와 관련 변인들(예. 예측변인, 매개변인, 조절변인) 간의 구조적인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양옥승, 1997). 하지만, 영유아교사가 보육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정서에 대한 회상을 통한 당시의 심리적 혹은 정서적 경험을 보고하는 기존의 연구방식은 측정코자 하는 순간의 정서나 심리 상태에 대한 정확한 보고에 한계가 있으며, 기억 및 회상으로 인한 오류를 제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김수정, 이윤길, 2017). 이러한 한계점을 인식하고, 정서경험에 관한 연구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남기원과 이은형(2015)이 사용한 사건-연계 기록법은 추후 영유아교사의 다양한 정서경험 연구에서 활용할 수 연구방법으로 여겨진다. 이 외에도,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감정, 생각, 행동, 그리고 그 행동 및 정서적 경험이 발생하는 환경(context)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의 연구방법인 경험표집 연구법(Experience Sampling Method: ESM)(Csikszentmihalyi, Rathunde, & Kalen, 1997; Larson, 1989)은 영유아교사의 주관적인 정서 경험들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서적 경험이 보육현장의 어떠한 상황적인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반복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 경험과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Yip & Douglass, 2013; Zirkel, Garcia, & Murphy, 2015),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의 적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근 한국에서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 관련 연구의 연구주제 동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많은 연구들이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에 관심을 가졌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영유아교사의 소진감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영유아교사의 정서적 소진이 영유아교사의 직무만족도 및 이직률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비추어볼 때(김경호, 2013; 김난실, 이진화, 2017; 김수연, 조혜진, 2015; 방해순, 조옥선, 2017), 영유아교사의 정서적 소진에 관하여 탐구하는 연구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영유아교사 개인이 자신의 정서를 영유아교사로서의 사회적 규범, 혹은 어린이집 조직 내의 표현규범(display rules)에 맞추어 내재적 조절의 과정을 거쳐 조직에서 요구하는 감정에 일치하도록 조절하는 심리 정서적 노력을 의미하는 정서노동(emotion labor)은(신동주, 김승옥, 2016; 이해진, 정대련, 2017; 탁진국, 노길광, 이은경, 2009; Hochschild, 1990) 소진과

같은 영유아교사의 부정적인 정서경험을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정서경험 자체로서 활발하게 연구되어져 오고 있었다(고재욱, 2012; 신동주, 김승옥, 2016; 이연준, 서영숙, 2015; 이진화, 박은혜, 2008; 이진화, 이해원, 유진경, 2010; 조미숙, 전홍주, 2016; 탁진국 외, 2009). 특히, 조미숙과 전홍주(2016)는 어린이집 만 1세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하루일과를 통해 어떠한 정서적 노동을 경험하는지에 관한 질적인 연구 자료를 수집함으로써 영아반 교사의 정서노동을 탐색하고, 이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를 실시한 바 있었다.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정서적 노동의 유형 중, 특히, 노동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분류되는 표면적 행동(자신의 정서와 다르게 가장해서 표현해야 하는 정서노동의 유형)(권정운, 2010; 탁진국 외, 2009)이 영유아교사의 낮은 직무만족도(김난실, 이진화, 2017; 김수연, 조혜진, 2015; 유경숙, 2017) 및 직무스트레스(권정운, 2010) 등과 높은 상관성을 갖는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비추어볼 때, 영유아교사의 정서적 노동에 관한 연구들은 영유아교사들의 건강한 정서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강상, 류경희, 2016; 정재은, 김성현, 2018).

이러한 영유아교사의 부정적인 정서경험에 관한 연구에 반하여, 긍정심리학에 근간을 둔 영유아교사의 긍정적인 정서 경험에 관한 연구들이 영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초점을 맞추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남기원, 이은형, 2015; 송미선, 2014; Fredrickson & Joiner, 2002; 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4). 영유아교사의 행복을 예측하는 변인으로는 교사효능감, 기관 내의 사회적지지, 직무만족도, 그리고 교사의 성격특성들이 제안되어졌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경험은 교사-유아 간 상호작용 및 긍정적인 보육활동 수행과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영유아교사의 정서적 경험이 교육활동 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고 있는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다시 확인해 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안혜준, 2010; 오정민, 신나리, 2017; 이진화, 박은혜, 2008; 이춘복, 2016; Hargreaves, 1998).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최근 수행된 연구들이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정서들 중, 특정 정서, 즉, 부정적

정서로서 소진, 혹은 긍정적 정서로서 행복감에 집중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영유아교사가 일과 중 경험하게 되는 정서적 경험은 이보다 다양할 것이다(이승미, 이승연, 2009).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정서를 보다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추후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서, 영유아교사들이 보육일과 중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정서경험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를 위해 행복감(임승렬 외, 2014)과 소진(김연옥 외, 2012) 외에도, 우리나라 영유아교사들이 처해 있는 보육환경을 반영한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정서 측정을 위한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된 다양한 정서 변인의 척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앞서 논의한 회고에 의한 단순화된 정서 경험 측정방법 외에, 보육활동 중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정서를 그 즉시 보고하고, 그 정서를 유발하는 사회맥락을 함께 보고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방법을 도입함으로써(예. 경험표집분석방법, 사건-연계 기록법), 정서를 유발하는 맥락, 이러한 정서들을 조절할 수 있게 해 주는 사회심리학적 자원 등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절차를 통하여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정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최근 수행된 영유아교사의 정서와 관련된 연구들의 동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축적되어온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 및 이를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관계들, 그리고 연구 방법에 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하여, 영유아교사들이 경험하는 정서에 관한 체계적인 이해 및 건강한 정서 경험을 지원하기 위한 추후 연구의 방향을 제안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영유아교사의 정서경험과 관련하여 최근 수행된 다수의 연구들 중 일부의 연구들을 선정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추후 보다 확장된 문헌을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을 통하여서, 영유아교사의 정서와 관련하여 수행되는 국내외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의 경우, 근무 환경의 다양한 측면에서 차이를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므로, 유치원 교사만을 대상으로 교사의 정서경험을 살펴본 논문은 본 논문의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조사대상의 범위를 보육교사 혹은 영아담당교사 등으로 한정

한 추후연구를 통하여 특별한 교육 환경 속에 있는 교사군의 정서경험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 논문의 선행연구 분석에 사용된 1차적 기술 통계 분석 외에도, 추후 연구를 통해 특히, 보육교사의 정서경험으로서 빈번하게 관찰되는 행복 및 소진과 같은 특정 정서경험들의 예측변인 등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영유아교사가 경험하는 고유의 정서경험과 이와 관련된 경험들, 또는 정서경험의 하위차원으로서의 다양한 경험들 간의 위계를 분명히 하고,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분석이 추후 연구를 통해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영유아교사들이 유아교육 및 보육 현장에서 보다 빈번한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기여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강미자(2013). 보육교사의 역할스트레스가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8(4), 153-179.
- 강상, 류경희(2016). 유아교사의 여가활동과 감정노동과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6(2), 105-117.
- 강현미(2015). 영아교사의 행복플로리시 역량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3), 159-184.
- 고재욱(2012). 보육교사의 감정노동 해소에 관한 연구.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6(2), 271-294.
- 권정윤(2010). 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정서노동 및 직무스트레스와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0(6), 269-289.
- 권혜진(2009).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이 정서적 고갈에 미치는 영향: 정서표현규칙의 중재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3(6), 55-276.
- 김건옥(2016). 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MeFOT 창의인성연구**, 5(1), 5-22.
- 김경호(2013). 보육교사의 직무만족이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33(2), 326-365.
- 김경희, 송진영, 박용순(2017).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 **GRI 연구논총**, 19(3), 419-445.
- 김기철, 신애선(2016). 영아교사의 전문성, 민감성, 행복감과 영아-교사 상호작용의 관계 및 영향력. **한국보육학회지**, 16(2), 57-82.

- 김난실, 이진화(2017).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12(1), 199-222.
- 김미진, 황해익(2015). 성격 강점에 기반한 유아교사의 행복 증진 프로그램 개발. **열린유아교육연구**, 20(5), 65-94.
- 김수연, 조혜진(2015).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9(3), 71-93.
- 김수정, 이윤길(2017). ESM 기반 보육교사 정서 연구를 위한 데이터 표집기술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예술인문사회 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6), 199-206.
- 김연옥, 천성문, 이정희(2012). 유아교사 소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열린유아교육연구**, 17(4), 273-298.
- 김은주, 이기중(2014).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삶의 질, 교사효능감, 자기결정성 간의 관계 검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1), 205-223.
- 김정희, 최미경(2013). 보육교사의 개인변인, 정서노동, 직무소진의 관계. **생태유아교육연구**, 12(2), 51-68.
- 김혜순(2015). 유아교사의 애착실행모델과 교사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성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95, 153-171.
- 김화선, 조홍자(2017).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이직의도. **아동과 권리**, 21(4), 585-604.
- 김화순, 문혁준(2016).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및 직무만족도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35(1), 43-70.
- 남기원, 이은형(2015). 초임유아교사의 행복감 특성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9(5), 255-277.
- 노희연(2007). 영아관련 연구동향 분석: 국내 학위논문들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27(4), 277-301.
- 박병기, 김미애, 이세현, 권태순, 김지영, 이시은(2014). 유아교사의 행복 경험: 여섯 교사의 내러티브 탐구. **아동교육**, 23(3), 205-224.
- 박선미(2013). 유아교사의 정서조절능력, 유아-교사 관계, 소진 감 간의 관계. **아동교육**, 22(1), 21-32.
- 박영신(2017). 정서적 지원과 직무 스트레스가 유아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경력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열린부모교육연구**, 9(4), 309-325.
- 방해순, 조옥선(2017).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직무소진과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3), 309-332.
- 서미정, 이경남(2017). 보육교사의 보육효능감에 대한 원장과 동료의 정서적 지지, 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셀프 리더십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2), 1-28.
- 서정아(2010). 유치원 현장에서 교사의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한국교원교육연구**, 27(2), 229-262.
- 송미선(2014). 유아교사의 행복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 **어린이미디어연구**, 13(3), 149-169.
- 신동주, 김승욱(2016).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유형과 사회적 지지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11(1), 119-141.
- 신애선(2017). 영아교사의 애착 및 영아의 몸짓과 영아 언어발달 간의 관계. **한국보육학회지**, 17(4), 121-143.
- 신희정, 문혁준(2013). 영아보육교사의 정서지능과 어린이집 조직문화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3), 29-48.
- 안혜준(2010). 유아교사의 반성적 정서저널쓰기 과정의 의미탐색. **유아교육학논집**, 14(4), 287-314.
- 양연숙(2011). 보육교사의 이직의도 및 전직의도에 미치는 보육효능감과 소진의 상호작용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4), 205-221.
- 양옥승(1997). **유아교육연구방법**. 서울: 양서원.
- 오봉희, 송주연, 박수경(2017). 영아교사의 정서노동, 직무만족도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1(2), 201-223.
- 오정민, 신나리(2017). 보육교사의 정서노동과 회복탄력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총**, 21(1), 15-30.
- 유경숙(2017). 보육교사의 감정노동이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26(4), 23-38.
- 이강훈, 황해익(2017). 유아교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간의 위계적 선형모형 (HLM) 분석. **아동교육**, 26(2), 247-270.
- 이경화, 심은주(2013). 영, 유아교사의 영성과 기관 내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17(2), 219-239.
- 이나영, 국지윤, 김영옥(2014). 보육교사의 심리적 소진과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의 관계에서 정서노동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89, 341-359.
- 이병임(2014). 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과 정서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4(3), 129-152.
- 이선미, 이승미(2013). 영아교사의 정서노동이 교사-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정서지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8(6), 153-180.
- 이승미, 이승연(2009). 만 2 세 영아반 교사로서 맺는 다양한 관계에서 경험하는 정서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6(2), 297-322.
- 이연준, 서영숙(2015). 보육교사의 정서표현규칙과 정서노동 수행전략에 관한 연구.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1(5), 19-37.

- 이영미, 민하영(2011). 영유아보육 교육기관 교사의 표면적 정서노동과 직무소진간 관계에서 시설장, 동료교사, 학부모의 정서적 지지의 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7(1), 167-185.
- 이유경, 이선미(2016). 보육교직원의 정서노동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조직문화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3(4), 99-122.
- 이은숙, 이경님(2015).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직무스트레스 및 교사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221-238.
- 이재무, 송영선(2012).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의 확대 시행에 따른 만족도 조사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72, 379-399.
- 이지연, 이효림, 정정희(2015). 정서노동이 유아교사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집단자존감의 매개효과.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2), 617-636.
- 이진화, 박은혜(2008). 개인 및 기관 정서변인이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교육연구**, 25(1), 5-27.
- 이진화, 이혜원, 유진경(2010). 유아교사의 정서지능-자기효능감-정서노동과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5(2), 117-136.
- 이춘복(2016). 정서적 역량 증진 프로그램에 따른 유아교사의 정서적 역량 변화 탐색. **유아교육학논집**, 20(2), 167-192.
- 이혜진, 정대련(2017). 유아교사의 정서노동 관련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8(2), 337-364.
- 임소연(2017). 유아 교사의 행복감과 정서표현성 및 교사 효능감 간의 관계. **교육연구**, 2(1), 121-143.
- 임수진, 여은진, 이해원(2013). 영유아 교사의 직무만족, 교사 효능감, 조직몰입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33(3), 301-318.
- 임승렬, 김정림, 전방실(2014). 영유아교사의 행복 측정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학논집**, 18(1), 405-431.
- 임영미, 정희정(2016). 보육교사의 정서지능, 정서노동, 정서 표현성이 교사-영유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4), 77-105.
- 장희선(2017). 영유아교사의 정서지능과 의사소통능력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의사소통능력의 매개효과. **열린 유아교육연구**, 22(1), 303-323.
- 정다우리(2013). 어린이집 교사의 행복감, 관심사 및 교사 인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과의 관계. **한국영유아보육학**, 81, 49-70.
- 정택희(2015). 보육교사의 소진에 대한 이야기.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2(2), 77-99.
- 정순영, 김경란(2017). 보육교사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행복감 및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미디어 연구**, 16(3), 1-22.
- 정순희, 최영미, 이희영(2013). 영아유아교사의 교사효능감 및 정서적 지지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0(4), 193-215.
- 정재은, 김성현(2018). 정서노동이 유아교사의 심리적 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8(1), 193-216.
- 정지연, 박영희(2015). 보육교사의 근무환경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진의 매개효과와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5(6), 297-316.
- 정지연, 박영희(2016). 보육교사의 직무소진에 대한 직무 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정서적 지지의 구조적 관계. **사고개발**, 12(1), 111-132.
- 정희정, 김정희(2016).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 관련 국내 학술지 연구동향 분석.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7(3), 293-317.
- 조미숙, 전홍주(2016). 만 1 세 영아반 교사의 정서적 노동에 대한 경험 탐색. **한국보육학회지**, 16(4), 23-50.
- 조복희, 강희경, 김양은, 한유미(2013). 한국 보육의 역사 및 관련법과 현황. **한국보육지원학회지**, 9(5), 381-405.
- 조혜진, 김수연(2012). 영아 교사의 정서지능과 교사-영아 상호작용의 관계.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189-208.
- 최진영, 김영희, 김대광(2015).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의 직장내 지지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19(4), 573-593.
- 최형성(2015). 보육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유아교육학논집**, 19(5), 193-212.
- 최혜진, 이호필(2015). 유아교사의 행복감과 셀프리더십이 교수몰입에 미치는 영향.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6(2), 515-537.
- 탁진국, 노길광, 이은경(2009). 보육교사의 정서노동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4(4), 567-589.
- 황해익, 강현미, 탁정화(2014). 유아교사의 유머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긍정성의 매개효과. **유아교육학논집**, 18(1), 341-363.
- 황혜신(2010). 정서노동 및 자아탄력성이 보육교사의 소진에 주는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48(7), 23-32.
- Bakker, A. B. (2005). Flow among music teachers and their students: The crossover of peak experien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66(1), 26-44.

- Beilock, S. L., Gunderson, E. A., Ramirez, G., & Levine, S. C. (2010). Female teachers' math anxiety affects girls' math achievement.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07*(5), 1860-1863.
- Chang, M. L. (2009). An appraisal perspective of teacher burnout: Examining the emotional work of teachers.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1*(3), 193-218.
- Csikszentmihalyi, M., Rathunde R., & Kalen, S. (1997). *Talented teenagers: The roots of success and fail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wards, C. P., & Raikes, H. (2002). Extending the Dance: Relationship-Based Approaches to Infant/Toddler Care and Education. *Young Children, 57*(4), 10-17.
- Fredrickson, B. L., & Joiner, T. (2002). Positive emotions trigger upward spirals toward emotional well-being. *Psychological Science, 13*(2), 172-175.
- Frenzel, A. C., Goetz, T., Lüdtke, O., Pekrun, R., & Sutton, R. E. (2009). Emotional transmission in the classroom: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enjoy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1*(3), 705.
- Goldstein, L. S., & Lake, V. E. (2000). Love, love, and more love for children: Exploring preservice teachers' understandings of caring.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6*(8), 861-872.
- Hagenauer, G., Hascher, T., & Volet, S. E. (2015). Teacher emotions in the classroom: Associations with students' engagement, classroom discipline and the interpersonal teacher-student relationship. *European Journal of Psychology of Education, 30*(4), 385-403.
- Hall-Kenyon, K. M., Bullough, R. V., MacKay, K. L., & Marshall, E. E. (2014). Preschool teacher well-be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42*(3), 153-162
- Hargreaves, A. (1998). The emotional practice of teaching.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4*(8), 835-854.
- Hochschild, A. R. (1990). Ideology and emotion management: A perspective and path for future research. *Research Agendas in the Sociology of Emotions, 117*, 117-142.
- Honig, A. S. (2002). *Secure relationships: Nurturing infant/toddler attachment in early care setting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Young Children.
- Keller, M. M., Chang, M. L., Becker, E. S., Goetz, T., & Frenzel, A. C. (2014). Teachers' emotional experiences and exhaustion as predictors of emotional labor in the classroom: An experience sampling study. *Frontiers in Psychology, 1442*(5), 1-10.
- Larson, R. (1989). Beeping children and adolescents: A method for studying time use and daily experi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8*(6), 511-530.
- Lee, S. Y. (2006). A journey to a close, secure, and synchronous relationship: Infant-caregiver relationship development in a childcare context. *Journal of Early Childhood Research, 4*(2), 133-151.
- Muehlenkamp, J. J., Engel, S. G., Wadeson, A., Crosby, R. D., Wonderlich, S. A., Simonich, H., & Mitchell, J. E. (2009). Emotional states preceding and following acts of non-suicidal self-injury in bulimia nervosa patient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7*(1), 83-87.
- Pekrun, R., Goetz, T., Titz, W., & Perry, R. P. (2002). Academic emotions i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hievement: A program of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ist, 37*(2), 91-105.
- Radel, R., Sarrazin, P., Legrain, P., & Wild, T. C. (2010). Social contagion of motivation between teacher and student: Analyzing underlying processe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02*(3), 577-587.
- Seligman, M. E. (2006). *Learned optimism: How to change your mind and your life*. New York: Random House, Inc.
- Seligman, M. E.,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
- Sutton, R. E. (2005). Teachers' emotions and classroom effectiveness: Implications from recent research. *The Clearing House, 78*(5), 229-234.

- Sutton, R. E., & Wheatley, K. F. (2003). Teachers' emotions and teaching: A review of the literature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15(4), 327-358.
- Yip, T., & Douglass, S. (2013). The application of experience sampling approaches to the study of ethnic identity: New developmental insights and directions. *Child Development Perspectives*, 7(4), 211-214.
- Zirkel, S., Garcia, J. A., & Murphy, M. C. (2015). Experience-sampling research methods and their potential for education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44(1), 7-16.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Early Childhood Teacher's Emotional Experience – Focusing on Domestic Journals –

Soo Jung Kim

Assistant Professor, The Department of Child and Youth Welfare, Pyeongtaek University

Abstract

Objective: By doing a more comprehensive review of recent domestic studies related to the emotions experienced by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current study aims to suggest the direction of various emotional research experiences; and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program that helps early childhood teachers experience more positive emotions in the child care setting and effectively addresses the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

Methods: 87 previous studies which were published in the journals related to various emotional experiences experienced by the early childhood teacher since 2008 were analyzed.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emotion - related articles of early childhood teachers showed that, compared with before 2012, it increased after 2013. Also, the tendency of the data collection method was mostly composed of the papers using the questionnaire method using the test and the scale. As the most studied topic related to the emotional experience of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negative emotional experiences were the exhaustion experienced by the teachers. And the most studied topics on positive emotional experiences were the happiness experienced by early childhood teachers; The research that explores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happiness experienced by the early childhood teachers was the majority.

Conclusion/Implications: The analysis of this study suggests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emotions experienced by early childhood teachers and suggests future directions for supporting healthy emotional experiences.

Received July 30, 2018

Revision received August 23, 2018

Accepted September 5, 2018